



퇴직연금의 이해 (10): 퇴직연금의 계약구조

오병국 연구원

■ 퇴직연금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운용관리, 자산관리 서비스로 나눌 수 있음.

- 운용관리 서비스는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적립금 운용방법 및 관련 정보 제공, 적립금 운용 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자산관리기관에게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전달하는 업무 등임.
- 자산관리 서비스¹⁾에는 연금계좌의 설정 및 관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금융상품 매매, 가입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등의 업무가 포함됨.

■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운영하려는 기업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방식에 따라 번들(bundle)형과 언번들(unbundle)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이 제도를 운영할 때 필요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기관을 동일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번들형,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언번들형임.

■ 퇴직연금의 번들형 계약과 언번들형 계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이 번들형 계약을 선택할 경우, 단일 사업자와 운영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됨.
 - 한 사업자로 단일화된 운영 창구를 통해 운용 및 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으나 제도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가 구분될 경우 존재할 수 있는 사업자 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기업이 언번들형 계약을 선택하면, 운용 및 자산관리 각각의 전문사업자를 선정하여 복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사업자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의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계약의 유형으로는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1:1 방식, 하나의 운용 관리 계약과 여러 개의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1:N 방식, 여러 개의 운용관리계약과 여러 개의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N:N 방식이 있음.
- 운용관리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구분하여 제공받으므로 각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유리함.
- 그러나 여러 사업자 통제의 어려움, 사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기업의 퇴직연금 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됨.

〈표 1〉 퇴직연금 계약구조 형태

구분	번들(bundle)형	언번들(unbundle)형
계약체결 형태	단일사업자와 퇴직연금 계약체결	복수의 사업자와 퇴직연금 계약체결
운영창구의 단일화 여부	○	×
제도관리 및 운영의 복잡성	낮음	높음
운용 및 자산관리사업자 간 업무 흐름	원활함	사업자 간 이행상충 문제 발생 시 원활하지 못함
투자상품의 다양성 및 상품변경의 용이성	상품 line-up에 따라 다양함	

■ 우리나라의 경우 근퇴법에서 동일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 체결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퇴직연금 계약구조가 번들형임.

- 2010년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도입기업 중 단일 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비중이 80% 이상²⁾임.

2)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정책보고서 2013-2.